

광양시, 6월 출생아 100명...33개월만 ‘세 자릿수’ 회복

전년동월比 61.3% ↑ ...12개월 연속 ↑
청년층 유입·정주·복지 정책 시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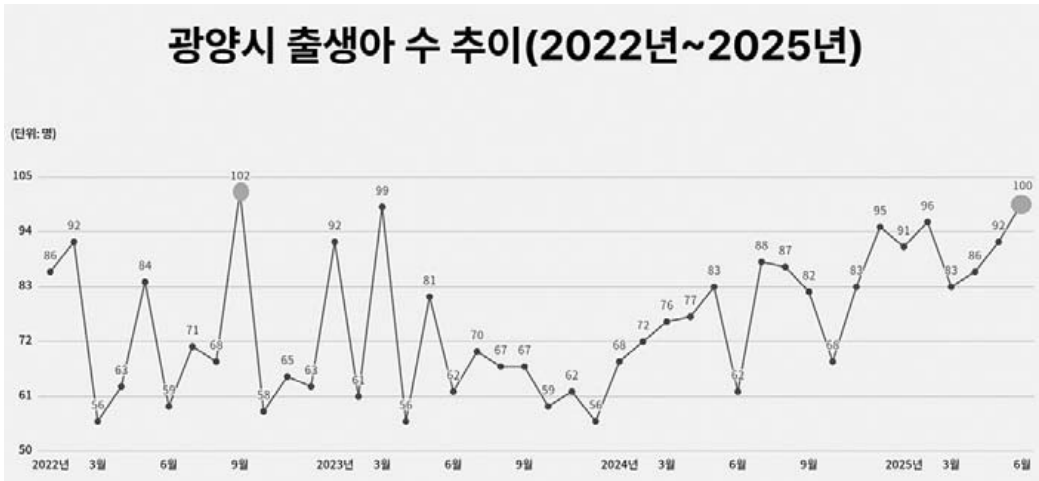
광양시의 출생아 수가 33개월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회복하며 인구 증가세에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5년 6월 출생아 수는 100명으로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돌파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1.3% 증가한 수치다.

〈그래프〉

일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6월 시점에서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저출산 위기 속에서 주목할 만한 반등으로 평가된다.

2022-2024년까지 6월 출생아 수가 60명대에 머물렀던 반면 2025년에는 5월 92명에서 6월 100명



으로 증가해 반등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광양시는 이 같은 변화가 계절적 요인보다는 2024년 7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세의 연장선으로, 구조적 변화에 따

복세다. 2022년 1.06명에서 2023년 0.99명으로 떨어졌으나, 2024년 1.09명으로 반등하면서 전국 78개 시 단위 지자체 중 5위로 상승했다.

광양시는 청년층 유입과 정착, 주거 안정을 도운 맞춤형 인구·복지 정책이 이번 반등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이차전지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산업 기반 강화와 함께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개설 ▲포스코 맞춤형 취업교육 (누적 947명 취업) ▲스마트팜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거 부문에서도 ▲청년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청년임대주택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신축아파트 공급도 전입 증가에 일조했다.

광양시는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달빛어린이 병원을 통한 야간·공휴일 진료 ▲전남공공산후조리원 6호점 개원 예정 ▲난임부부 시술비·교통비 지원 ▲산모 의료비 및 조리비 확대 ▲출생 축하금 완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생애복지 플랫폼’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6월 말 기준 688명 증가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영숙 출생보건과장은 “출생아 수 100명 돌파는 단순 수치 이상의 ‘세 자릿수 돌파’라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임신과 출산,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촘촘한 인구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순천, 1회 추경 2천402억 편성...“민생·경제 강화”

본예산比 16.3% ↑ ...역대 최대 규모

순천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천402억원을 편성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6.3% 증가한 1조7천171억원 규모로, 단일 추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4천14억원 (1천15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3천157억원 (1천245억원 증액)으로 각각 편성됐다.

순천시는 민생·경제·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본예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과 농업인, 청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과 발맞춰 추진되는 이번 추경은 민

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원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4억원 ▲공공배달앱 ‘떡깨비’ 홍보마케팅 3억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 사업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는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2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원 ▲지역성년혈관질환센터 기반 조성 1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원 ▲노인일자리 확대 3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축수산업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주요 내역은 ▲시설채소 기술지원 4억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 인프라 3

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억원 등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1천63억원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건립 103억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42억원 ▲덕연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원 등이 포함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서 시작한 민생·경제·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추경과 함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제288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군 가사문학면 청춘경로당이 보전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모범 경로당에 최종 선정된 가운데 기념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축하의미를 나눴다. <담양군 제공>

담양 가사문학면 청춘경로당 ‘전국 모범경로당’ 선정

전국 상위 0.1%...전남 7곳 중 하나

담양군은 9일 “가사문학면 청춘경로당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모범 경로당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청춘경로당은 전국 6만9천개 경로당 중 상

위 0.1%에 해당하는 69곳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전남도에서는 7개소만 이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지난 7일 열린 기념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한 박영돈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장, 홍기천 청춘경로당 회장, 이규현 도의원, 노대현 군의원, 최창기 고서농협장, 임석

길 분회장,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홍기천 청춘경로당 회장은 “전국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더욱 단합하고 신바람 나는 청춘리 노인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철원 군수는 “청춘경로당의 사례가 다른 경로당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어르신들의 자긍심과 경로당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 말차’ 열풍 젊은 감성 공략

그린다향 카페...음료·디저트 등 ‘인기’

보성군이 말차 열풍에 힘입어 젊은 세대를 겨냥한 특산 음료 마케팅에 나섰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말차코어(Matcha-core)’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말차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차의 본고장 보성군이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보성군은 지역 특산 말차를 활용한 콘텐츠로 젊은 세대 공략에 나섰다. 중심에 선 곳은 바로 보성군 봇재에 위치한 ‘그린다향’ 카페다.

“그린다향”은 ▲말차소프트아이스크림 ▲말차라떼 ▲말차크림라떼 ▲말차흑당버블 등 다양

한 자체 개발 음료를 선보이며, 감성적인 색감과 진한 향, 부드러운 맛으로 SNS 인증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봇재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4천373명 증가한 6만3천742명, 수익은 약 6% 증가한 3억2천 만원을 기록했다.

‘보성말차’의 품질은 그 뿌리인 ‘보성녹차’에서 비롯된다. 보성녹차는 2002년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등록,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11년 연속 수상, 미국·유럽·일본 유기인증

16년 연속 획득 등 차 산업의 품질 기준을 이끌어 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 말차는 맛과 향, 품질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라며 “녹차에 이어 말차 하면 보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차 산업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심우정 장성부군수 “군민 위한 현장 행정 실천”

취임 후 공식 업무 돌입

심우정(사진) 제32대 장성부군수가 최근 공식 취임 후 업무에 돌입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곡성군 출신인 심 부군수는 1993년 곡성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2000년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총무과, 인력관리과, 지역계획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특히 2017-2020년 장성군에서 교통정책과장과 서삼면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장성과는 두 번째 인연이다.

심 부군수는 전남도청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안전정책과장, 관광과장을 역임했으며 이달 장성군으로 부임해 행정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무원이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일일수록 앞장서 실천하고, 마을 민원부터 중앙정부 협업까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심 부군수는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되겠다”며 “장성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흥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사용 신청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장흥군은 9일 “지역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사진) 사용허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며, 지원 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장흥군내에 소재한 법인, 화원조합, 작목반 등이다.

‘산들해랑’은 ‘산, 들, 해(바다, 태양)’와 함께 ‘자란’이라는 의미를 담아 넓게 펼쳐진 산과 들, 5개 읍·면에 걸친 바다, 풍부한 일조량 등이 조화를 이뤄 길이 흥할 장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2019년에 공동브랜드로 개발돼 현재까지 총 23개 업체가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는 품목별 품위관리위원회 심사와 장흥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품질을 신뢰하고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 승인한다.

사용 허가를 받으면 허가기간 2년 동안 ‘산들해랑’ 상표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흥군에서 집중적인 브랜드 홍보 관리와 포장재 제작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구례군,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신체활동·비만예방 등 호평

구례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5년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성과개선)’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

‘건강증진사업 유공 포상’은 국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구례군은 신체활동과 비만 예방 프로그램, 경로당 순회교

육 등 활발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구례군은 영양플러스사업, 일상 속 걷기 실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보건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협력사업에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